

美議會圖書館所藏 韓國古典籍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n Traditional Korean Books Collect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현 영 아(Young-Ah Hyun)*

초 록

본 연구는 해외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한국의 고전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우선 미의회도서관에 所藏되어 있는 한국 고전적과 함께 지리류 가운데 古地圖 및 地誌 등에 대해 서지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전적들에 대해서는 주제별, 편찬 및 刊行과 판중별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지리류에 대해서는 朝鮮王朝 시대에 있어서의 이들 자료의 편찬 및 그 역사적 발달과 함께 미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의 고지도들에 대한 개개의 조사를 통해 이들 자료의 서지적 특징들을 살폈다. 이로써 미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의 고전적 및 고지도와 지지들의 소장 현황과 서지적 특징은 물론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이들 자료들과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ABSTRACT

As an attempt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traditional Korean books scattered about in the world, this study has bibliographically analyzed first of all traditional Korean books as well as old Korean maps and atlases, and topography descriptions collected by L. C.. Traditional Korean books have been analyzed classified by subject, printing or manuscript, and the kind of edition. Historical development in the compilation of geographical materials during the Chosun Dynasty has been studied. Especially on old Korean maps and atlases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have been researched.

Accordingly, the foundation has been laid not only for the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raditional Korean books and old Korean maps and atlases but also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raditional Korean books in Korea with the ones collected by L. C.

키워드: 미의회도서관, 고지도, 한국고서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ahyun@yahoo.com)
논문접수일자 2001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1년 12월 10일

1. 序論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은 결국 文獻 즉 記錄物이다. 이 記錄文化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회상 또는 문화 및 지식과 思考의 구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결국 오늘날의 문화적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이의 발전과정 및 근원에 대한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원인 것이다.

한국의 역사적 기록물중의 상당수가 외국에 산재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아까운 일이지만, 이들 資料 역시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정확한 시대적 문화적 이해를 위해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들이다. 이들 외국에 산재된 한국의 많은 자료들이 부분적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의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서에 대한 전체적 분석과 함께 그 가운데 우선 자료의 특성상 관심을 갖게되는 地理類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지적인 내용을 살펴 그 특징을 분석하므로서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所藏 韓國古書의 현황

미의회 도서관의 한국 고서는 한국 부서(Korea section)와 지도과 및 법률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이 소장본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총 413종 5,922권 2,870책의 소장

본에 대해 주제별과 편찬 및 간행 시기와 판종 별로 그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주제별

이들 소장 자료를 동양의 전통적인 주제 분류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經部의 서적이 39종 207권 156책으로 이들을 주제별로 세분해 보면, 總經류 2종 26권 8책, 易類 1종 9권 7책, 書類 2종 13권 13책, 詩類 6종 60권 34책, 禮類 9종 37권 28책, 春秋類 1종 8권 2책, 孝經類 1종 1책, 四書類 7종 42권 23책, 小學類 10종 12권 40책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經部 중에서는 小學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禮類, 四書類, 詩類 순으로 소장량의 순위를 볼 수 있다.

史部는 史書 및 王政정치에 필요한 자료들로써 186종 3,718권 1,772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을 세분 주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正史類 1종 137권 74책, 編年類 47종 2,268권 1,025책, 記事本末類 2종 46책, 別事類 1종 56권 6책, 雜史類 31종 127권 88책, 詔令·奏議類 2종 8권 4책, 傳記類 38종 176권 108책, 史鈔類 1종 8권 4책, 地理類 17종 107권 80책, 職官類 8종 120권 41책 政書類 28종 655권 258책, 系譜類 9종 15권 28책, 史評類 1종 41권 10책으로 編年類가 所藏된 史部 서적 중에 77%가 되어 主種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子部는 총 74종 569권 297책이 되는데 각 주제로 세분해 보면 儒家類 19종 143권 57책, 道家類 2종 10권 10책, 釋家類 19종 159권 54책, 兵家類 3종 10권 3책, 農家類 1종 1책, 醫家類 3종 56권 52책, 天文類 2종 1권 2책, 術

數類 4종 5권 7책, 藝術類 5종 9권 13책, 譯家類 3종 4권 5책, 正音類 1종 1책, 雜家類 4종 48권 21책, 類書類 7종 124권 70책, 기독교류 1종 1책 등 이다. 이로서 子部 中에는 儒家類와 釋家類가 각각 19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類書類 7종, 藝術類 5종으로, 儒家와 佛敎서적이 子部 所藏本 51.3%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集部는 총 114종 1,428권 645책으로서, 세분해보면 總集類 13종 116권 47책, 別集류 95종 1,283권 576책, 尺牘類 2종 7권 4책, 小說類 4종 22권 18책으로 集部에서는 別集類가 95종으로 集部 所藏本의 83%가 된다.

이상 미의회 도서관 所藏의 한국 고서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본 바, 史部의 서적이 186종으로 전체 413종의 45%를 차지하고, 그 다음 集部 114종으로 28%, 子部는 73종으로 18% 그다음 經部가 39종 9%가 되는데, 史部의 서적이 所藏本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각 部의 소장 분포를 살펴보면 經部에 있어서는 小學類가 10종으로 經部 中에 26%를 차지하고, 禮類가 9종으로 25%, 詩類가 6종으로 經部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小學類가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史部의 所藏분포를 보면 編年類가 47종으로 史部 中에 25%나 차지하고 있고, 傳記類는 38종으로 史部 中에 21%, 雜史類는 31종으로 史部 中에 17%, 政書類는 28종으로 史部 中에 15%가 所藏되어 있어 史部 中에 編年類가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子部는 儒家類가 19종, 釋家類가 19종으로 이 두 주제의 서적이 子部 所藏의 51%나 되며

類書類가 7종으로 6%, 藝術類가 5종으로 4%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서 儒家類와 釋家類의 서적이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集部에서는 別集이 95종으로 83%나 되며, 總集은 13종으로 11%밖에 되지 않아, 集部에서는 別集이 제일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서 미의회 도서관의 소장된 한국고서는 史書 및 왕정정치에 필요했던 史部의 서적이 제일 많이 소장되었으며, 그 다음 개인 문집과 儒家와 佛敎書籍 및 한문습득에 기초자료였던 小學類 등이 많음을 볼 수 있다.

2.2 편찬 간행시기 및 판종별

2.2.1 편찬·간행시기별

미의회 도서관 소장 한국 고서를 刊·寫別로 보면, 寫本이 57종, 刊本이 356종으로서 이들의 편찬 및 간행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寫本과 刊本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寫本에 있어서 가장 이른 편찬은 宣祖 1년 과 仁祖 1년이며, 가장 많은 편찬은 英·正祖 이후 즉 朝鮮朝 후기의 편찬이 51종을 이루고 있다.

刊行本에서는 朝鮮朝 以前의 것이 8종이고, 朝鮮朝 前期인 宣祖朝 以前의 소장본에서는 成宗朝 1종, 中宗朝 2종, 明宗朝 3종 宣祖朝 7종으로 총 13종이다. 그다음 朝鮮朝 中期에서는 光海君 3종, 仁祖朝 3종, 顯宗朝 5종, 肅宗朝 9종, 景宗朝 1종으로 총 21종이며, 조선조 후기에는 英·正祖 이후의 간행이 총 109종이다.

이로서 미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고서는 88%가 거의 英·正祖 이후 朝鮮組 後期에 간행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2.2.2 판종별

이들 자료를 필사본 56종을 제외한 357종을 판종별로 분석해 보면 石印版이 10종, 木活字板이 31종, 木板이 169종 활자판이 89종 기타 55종으로서, 목판본이 제일 많으며 그 다음 활자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중 활자판의 종류가 수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종류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辰字板 및 그 混入字板 3종, 戊午字板 1종, 戊申字板 4종, 顯宗實錄字板 2종, 後期芸閣印書体字 2종, 壬申字 및 그 혼입자板 4종, 丁酉字板 2종, 再鑄神構字板 2종, 初鑄整理字板 및 初鑄整理字板混入字板 2종, 지게다리획 印書字板 7종, 筆書体鐵活字板 1종, 混入補字板 1종, 整理字体鐵活字板 5종, 整理字体鐵活字板, 混入補字板 1종, 全史字板 18종, 全史字混入補字板 2종, 再鑄整理字板 3종, 新鉛字板 28종, 栗谷全書字板 1종 등 총 89종이다.

여기서 보면 壬辰亂이전의 甲辰字를 제외하면 소장본의 96%가 모두 壬辰亂이후에 간행된 것이며 특히 소장 활자판 전체의 86%가 英·正祖 후기에 간행된 것이다. 이 중 제일 많은 판이 新鉛字板 28종과 全史字 18종이다.

3. 地理類의 종류 및 발달

위의 미의회 도서관 所藏 문헌들 중에 일차적 특징적이라 볼 수 있는 地理類 資料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서지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바, 우선 한국의 古地理 관계 자료의

발달과 그 종류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처음 古代人들은 地理가 人間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바, 단순히 그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산천, 평야, 해양 등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그려도 보고, 기록도 하였던 것이 地圖와 地誌를 편찬하게 된 것이라 본다.

일반적으로 地理類를 동양 전적의 분류 방법이었던 四部法 上에서 史部 아래 地域의 沿革, 古蹟, 山川, 風俗, 物産, 人物 및 藝文을 수록한 것¹⁾으로 크게 地誌 즉 地理誌와 輿圖 즉 地圖를 포함하고 있다(譚新嘉, 韓梯要 1913).

여기서 古代에 地理類 관계 문헌을 역사서 및 왕정정치와 관계되는 史部에 포함시켰던 것은 地理類가 領土의 確定이나 軍備의 緩急, 徵稅의 타당과 증가를 꾀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국가를 이끌고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1 地誌

地誌는 地形에 관한 기록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그의 類型이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나, 오늘날까지 문헌으로 전해오는 것은 간접적인 자료 외에는 거의 없다(洪始煥 1997).

高麗時代에는 고려 宣宗때에, 宋나라에서 高麗에 간청한 圖書目錄에 「高麗風俗誌」1권과 「高麗誌」7권이 있는 것으로 보면 高麗에서 저술된 것임에 틀림없으나 傳하여지지 않고, 현재 전하고 있는 高麗시대의 地理誌로서는 第17代 仁宗

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六十八 史部 二十四 地理類 敘

23年(1145) 金富軾에 의해 편찬된 「三國史記」 地理誌 4권을 들 수 있다. 이는 三國의 沿革, 位置, 領域, 行政區分과 현재로서 알 수 없는 地方 358個 地名의 漢字의 音과 訓을 借用하여 기록하고 있다(鄭麟趾 외 1972).

朝鮮時代に 이르러서야 비로서 많은 地理誌가 편찬되는데 이는 朝鮮朝 前期 太宗·世宗朝를 거치면서 國政이 安定됨에 따라 國境의 整備, 國家의 租稅徵收, 國內實情의 파악을 위한 統治資料로서 地理誌 편찬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金相昊 1996). 朝鮮시대 地理誌 편찬 사업은 대체로 宣宗때의 壬辰亂을 기준으로 前·後期로 나누어 전기는 실용적 목적으로 朝鮮全國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편찬의 官撰地誌가 주류를 이루며, 後期에는 주로 어느 한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적인 편찬의 私撰地誌가 이루어졌다(國立地理院 1980).

3.1.1 朝鮮朝 前期

建國 初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奠都 문제로서 이에 도움이 되는 「地理秘錄撮要」가 제일 먼저 편찬되었다. 그 후 定宗·太宗·世宗등의 훌륭한 治世에 따라 국가의 기초가 확립되고 안정됨에 기틀을 마련을 위해 정치적인 기본 자료로 地誌가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엮어진 주요 官撰 地理誌로서는 가장 오랜 地方志인 세종 7년(1425)의 「慶尙道地理誌」를 비롯하여, 1454년에 이루어진 「世宗莊憲大王實錄」 제148권 地理誌 8券 8冊 일명 「세종실록지리지」가 있다.

한편 文宗 元年(1451)에 「高麗史」 139권이 편찬되었는데 이의 志 49권 중에 地理誌가 3권

으로 이루어졌으며 高麗史 地理志 라고도 한다. 이후 世祖때에는 實錄地理志가 出刊되던 그 다음해 卽位 元年(1455)에 集賢殿 直提學 梁誠之에게 우리 나라 地理書를 만들고 아울러 地圖를 그릴 것을 命하였다. 그 후 成宗9년(1479) 梁誠之가 「八道地理志」를 成宗에게 撰進하였으나, 이 八道地理志는 印刻되지 못한 채 후에 편성되는 「東國輿地勝覽」에 편입되어 그 眞本은 볼 수 없다. 이의 내용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慶尙道續撰地理志」로서 짐작될 수 있다.

「慶尙道續撰地理志」는 睿宗 元年(1469)에 撰進되었으며 官撰 地理志의 사업의 결실로서 成宗12년(1481)의 「東國輿地勝覽」 五十券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후 3차례나 증보되며 成宗 26년(1531) 修正되었다.

私撰 地理書로서는 申叔舟가 海東諸國에 使臣으로 있다가 그 견문한 바를 토대로 하여 成宗2년(1471)에 저술된 「海東諸國記」가 편찬되었으며, 이 외에도 宣祖23년(1590)에는 尹斗壽가 평안도 觀察使로 在職中 그 견문된 바를 토대로 16권이 地志 「平壤志」가 편찬되었다.

3.1.2 朝鮮朝 後期

朝鮮朝 後期인 壬辰亂 後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 純宗 末까지의 이 시기에는 첫째, 어느 한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私撰 또는 官撰 地理誌가 많이 편찬되었으니, 韓百謙의 「東國地理志」와 李植의 「北官誌」, 金魯圭의 「北輿要選」, 洪良浩의 「北塞記略」 및 洪儀泳의 「地關記事」 등 많은 關北地方의 地理志가 편찬되었으며 官撰 地理志로서는 「增補文獻備考」 輿地考와 韓致淵의 「海東釋史」의 地理考가 편찬되었다.

둘째, 실학자들에 의한 실용적이고도 과학적

인 지리지가 비교적 많이 저술되었으니, 李東煥의 「擇里志」, 李瀼의 「星湖塞說」, 申景濬의 「道路志」·「山水考」·「疆界考」, 柳得恭의 「渤海考」·「四郡志」, 成應海의 「東國名山記」, 丁若鏞의 「大韓疆域考」, 金正浩의 「大東地誌」, 韓在謙의 「高麗古道徵」 등이 편찬되었으며 이외에도 순전한 지리서는 아니나 地理에 관한 著述이 있는 문헌들도 있으나 이는 생략기로 한다.

셋째, 英·正祖시대를 전후하여 편찬된 수많은 邑誌와 「輿地圖書」를 들 수 있다. 여기서 邑誌라 함은 어느 한 地方에 한정된 地理誌를 말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는 각 郡邑에 거의 모두 邑誌가 마련되어 있으며 藏書閣과 奎章閣에 現存된 것만도 210개 邑誌가 소장되어 있다. 「輿地圖書」는 英祖때 各道 邑誌를 모아 改修하여 한 권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도 輿地圖는 各邑 地圖을 의미하고 「書」는 各邑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邑誌에 地圖가 붙은 全國地圖임을 뜻한다.

넷째, 朝鮮朝末의 地理教科書의 地誌를 들 수 있다. 朝鮮朝 末期에 西歐文化가 들어오면서 近代學校의 地理教科書가 편찬되는데, 高宗 在位年間に 저술된 「東國輿地備攷」, 15세기 말 吳竑의 「輿載撮要」 및 育英公院의 미국인 교사(H. B. Hulbert)가 지은 순 한글의 「스민필지」 및 光武 隆熙年間的 「朝鮮地誌」, 「大韓地誌」 등 거의 30권의 地理教科書의 地誌를 볼 수 있다.

이상으로 朝鮮朝 전후의 地理誌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바, 전국의 地誌는 官撰 및 私撰의 地誌와 실학파의 地理誌 및 전국 각 지역의 邑

誌가 많이 편찬되었으며 近代의 지리교과서도 많이 볼 수 있다.

3.2 地圖

우리나라에서는 三國 및 高麗時代로부터 지도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대부분 중국문헌²⁾ 및 한국의 문헌³⁾ 상으로만 전해질 뿐이며 현재 전해지는 것은 모두 朝鮮시대 것으로 세계 및 외국 지도와 한국지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2.1 世界 및 外國 地圖

朝鮮시대 초기의 세계 지도로서는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天下圖」를 들 수 있다.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그 하단에 있는 權近의 발문에 의하면 太宗 2년(1402) 左政丞 金士衛, 右政丞 李茂와 李蔭가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寫本으로서 현재 전해지는 있는 우리나라 및 동양에서의 最古의 세계지도로서 고려시대의 지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國立地理院 1980). 後者인 「天下圖」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잘 나타난 지도로서 中心 大륙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環大陸 및 그 밖을 바다로 둘러싸고 있는 원형으로 구성된 세계지도이다. 이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에만 남아있다.

이외의 朝鮮朝 초기의 외국지도로는 申叔舟의 「海東諸國記」에 삽입된 「海東諸國總圖」, 「琉球國地圖」, 「日本國西海道九州之圖」 등 일본에 관한 地圖와 中國中心의 東洋에 대한 地圖⁴⁾ 및

2) 『遼史』 卷11 列傳 45, 外記 高麗傳.

3) 『高麗史』 卷17, 毅宗 2년. 『三國遺事』 卷2, 『三國史記』 卷7.

4) 『睿宗實錄』 卷6 元年 6月條 천하도를 완성하여 임금이 재상에게 이 지도를 보이고 산천을 알고 형세를 살리게 했다는 기록으로서 여기서의 천하도는 원형이 세계 지도와는 다른 東洋세계를 뜻한다고 본다.

滿洲와 우리나라 地方境界地方에 관한 지도들이 제작되었다(國立地理院 1980).

이러한 朝鮮朝 初의 세계 및 외국지도 제작은 朝鮮朝 後期까지 그대로 전해지나 17세기 초기 부터는 근대 서양의 지도 즉 1602년에 완성된 마테오리치의 「坤輿萬國全圖」가 宣祖36(1603)에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南懷仁의 「坤輿地圖」 등이 중국을 통해 도입되면서 새로운 세계 지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조선조 후기에 만들어진 세계지도로는 1700년대에 작성된 舊大陸地圖로서 「輿地全圖」를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을 中心으로 하고 주변 국가를 간단히 표시한 중국식 세계지도로서 널리 이용되었으며 이런 종류의 지도로는 金壽弘의 「天下古今總便覽圖」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중국중심으로 동양을 나타낸 「天下輿地圖」 등을 들 수 있다. 이의 지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부분이 자세하고 또 전체 지도에 비교하여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東西兩半世界地圖로서 南懷仁의 「坤輿地圖」와 다른 木版本 「地球前後圖」가 있는데 이는 舊大陸을 前圖, 新大陸을 後圖으로 하였다. 이의 제작은 崔漢綺와 金正浩의 공동제작으로 보며(國立地理院 1980) 이러한 종류의 지도는 建陽元年(1896) 學部編輯局 重刊이라 기재되어 있는 「五洲各國統局全圖」 등에서도 볼 수 있다.

3.2.2 韓國地圖

韓國地圖로는 朝鮮朝 初에 李薈의 「八道地圖」와 鄭陟, 梁誠之의 「東國地圖」 및 「東國輿地勝覽」의 「八道統圖」와 「道別圖」 등이 있다.

「八道地圖」는 朝鮮 最古의 지도로 太宗2년(1402)에 만들어졌다. 이 지도는 현존하지는 않

으나 그 면모를 「歷代帝王混一疆理圖」의 우리나라 지도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東國地圖」는 世祖 9年(1463)에 鄭陟과 梁誠之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洪始煥 1997). 朝鮮前期 지도의 완성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이상태 1999). 그 계통을 이은 지도로 현존하지는 않지만 「朝鮮方域圖」가 있다.

「東國輿地勝覽」은 조선조 전기의 官撰地志 편찬 사업의 결실로서 成宗 12年(1481)에 50권으로 완성되었다. 그 후 5권이 증보되어 현재의 「新增東國輿地勝覽」이 中宗 26年(1531) 완성되었으나 이 책의 卷首에 八道州縣圖를 붙여 版心에 東覽圖라 새겨져 있어 이를 동람도라고도 부른다.

조선조 후기에는 또한 자세한 大縮尺 지도의 발달을 볼 수 있으니 즉, 필사본인 鄭尙麟의 「東國地圖」와 金正浩의 「靑邱圖」, 「大東輿地圖」는 모두 50만분의 1의 大縮尺 地圖로서, 여러 장을 연결하여 韓國全圖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조 후기에 오면 지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關方地圖, 西北疆界圖, 西北彼我兩界滿里一賢圖, 療蕪關方 및 많은 郡縣圖와 官營圖 등이 제작되었으며 地圖冊의 제작이 활발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의 古地理類의 종류 및 발달을 살펴본 바 朝鮮朝 前後期를 통하여 많은 地誌와 地圖의 편찬을 볼 수 있었다.

4. 地理類의 서지적 특징

위의 지리류의 발달과 함께 미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古書本 중에 지리류 자료의 내용과

그 서지적인 특징을 地誌와 地圖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地誌

4.1.1. 大韓疆域考

이는 정약용의 我邦疆域考에 張志淵이 별도의 按說을 붙이고 日本의 古史에서 任那考를 첨가하고 黃草嶺碑文과 당시 문제 되었던 白頭山定界碑考를 첨부하여 光武 7年(1903) 新式 鉛活字로 증보한 것이다. 裝幀 형태는 黃絲四針綴로 되어있으며 원래는 9권 2책이나 美의회도서관의 소장본은 8권 2책으로 되어있다.

4.1.2 萬國地誌

이는 高宗 32年(1895)에 學部 編輯局編으로 간행된 세계각국의 지리에 관한 교과서이다. 제 1편은 아시아 16개국, 제 2편은 아프리카 8개국, 제 3편은 유럽 18개국, 제 4편은 북아메리카 11개국, 제 5편은 남아메리카 11개국, 제 6편은 오세아니아주 등으로 나누어 기록되었다. 각 州의 개략과 각 國의 위치, 면적, 인구, 지형, 수도, 產物 등을 수록하였다. 형태적 특징은 學部木活字로 分冊되지 않았으며, 四周單邊으로 有界 10行 20字로 魚尾는 上二葉花紋魚尾로 되어있다.

4.2 地圖

4.2.1 全國圖

1) 大東與地圖

이는 寫本으로 古山子 金正浩가 哲宗 12年(1861)에 제작한 分帖折疊式 지도를 바탕으로 그린 彩色 全圖이다. 地名, 寺院을 자세하게 표시하고 또한 營衛, 邑治, 城域, 古山城, 驛站, 倉庫, 牧所, 坊里, 道路 등이 지도표 및 산맥, 강, 郡面을 채색하여 식별이 쉽게되었다. 지도를 만든 시기는 高宗朝인 19세기로 추정되며 22장으로 되어 있는 摺鑄裝이다.

2) 大朝鮮國全圖

이는 木版으로 京城附近地圖, 京城圖, 京畿道圖, 忠淸道圖, 全羅道圖, 慶尙道圖, 江原道圖, 咸鏡道圖, 平安道圖, 黃海道圖 등을 총괄하여 새긴 墨色 地圖 冊이다. 지도내용과 제작 방법으로 미루어 19世紀 末期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세로 28cm 가로 17.5cm이며 1553~54년 東京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大朝鮮地圖

이는 채색 사본으로서 紅色題簽에 大朝鮮地圖를 墨書하고 地圖 끝에 '甲戌(高宗 11, 1874) 下秋二十九日 西村 膾圖'를 墨書識記하고 있다. 慶尙道圖에 英祖 43年(1767) '安陰'을 '安義', '山陰'을 '山淸'으로 改稱한 地名⁵⁾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以後 그린 地圖를 바탕으로 高宗 11年(1874)에 膾圖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형태적 특징 세로 15cm 가로 9cm 크기의 摺鑄裝이며 지도 12장으로 되어있고 全張의 크기는 세로19cm, 가로 32cm이다.

5) 『英祖實錄』 卷 109, 43年 7月 庚申條.

4) 大韓帝國地圖

大韓帝國이 隆熙 2年(1908)에 현대식 銅版으로 彩色 印刷한 우리나라 13道の 地圖이다. 이 지도는 일본의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日本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나타난다. 지도 주위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의 基地로 이용한 元山港, 仁川港, 群山港, 木浦附近圖, 鎭南浦, 釜山港이 삽입되어 있다. 露日戰爭으로 租備한 遼東半島와 旅順등을 우리 地圖안에 표시하였으며 南滿州 地方도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北間島의 일부를 우리영토로 들어오게 한 점도 注目의 對象이다.

지도 제작이 정교하고 정확하며 地形은 羽毛式과 陰陽 方法을 兼용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다. 玄公廉이 편찬한 것으로 크기는 세로 103.5cm 가로 75.3cm이며 100만분의 1로 축적한 것이다. 皇城 : 中央書館, 安東書館, 博文書館 隆熙 2년의 刊記가 있다.

5) 東國輿地圖

이는 呂溫謹의 著로서 不分卷 1冊으로 木版으로 되어있다. 天下圖 中國圖 東國大摠 琉球圖 日本國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 慶尙道 平安道 黃海道 咸鏡道를 總括하여 版刻한 地圖冊이다. 책머리에 歲屠維作噩(己酉, 憲宗15, 1849) 仲秋 上澣 錦湖散人 河南 呂溫謹 與噩圖序' 가 새겨 있고, 同版本인 奎章閣 所藏本 卷末에는 '崇禎 後四己酉(憲宗15, 1849) 春鳥嶺始刊'의 刊記가 표시되어 있다. 憲宗15年(1849) 鳥嶺에서 처음으로 刊行된 地圖冊이다. 江原道圖에는 鬱陵島와 于山島가 함께 우리나라의 領土로 표시되어 있다. 板本の 서지적 특징은 四周單邊으로서 半郭의 크기가 세로 27cm, 가로 16cm, 序文은 11

항 26자로 되어있으며 內向二葉花紋魚尾로 憲宗 15年(1849)에 刻했음을 알 수 있다.

6) 東國地圖

'八道圖'를 기록하며 1740년에 英祖 때의 실학자인 鄭尙驥이 만든 彩色 寫本의 地圖이다. 朝鮮全圖와 道別圖 8貼 도합 9貼의 지도첩으로 된 것과, 전국에 따른 大幅地圖로 된 것이 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縮尺이 처음 기입된 특기할 만한 지도이며 100里를 1尺으로 10里를 1寸으로 측정단위를 작성하였다. 이 東國地圖의 특징을 종합하면, 百理尺을 쓴 것과 各圖를 이으면 全圖가 되도록 같은 縮尺에 의해 그렸다는 점, 水陸通路를 명시했고 통신망을 나타냈으며 山脈을 뚜렷이 나타낸 점등이다. 道別로 彩色되어 있는데 色의 배분이 다양하여 첫눈으로 전국의 지리적 현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동국지도는 慶尙道圖에 英祖43年(1773)에 改稱된 安義와 山淸의 地名이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18世紀 後期 以後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7) 鮮域圖

이는 摺錦裝의 彩色 寫本으로서 지도가 모두 6장으로 되어있고 全張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 내용을 보면 地圖右側餘白에 于山圖와 鬱陵島에 관한 沿革을 詳記하고 있다. 咸鏡道圖를 보면 正祖 24年(1800)에 '利原'으로 改稱되기 以前의 舊地名인 '利城'이 쓰이고 있으며, 慶尙道圖에는 英祖 43年(1767)에 '安陰'이 '安義' 그리고 '山陰'과 '山淸'으로 改稱되었는데⁶⁾ '安陰'과 '山淸'의 舊名과 改名이 混用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8世紀 後期에 1767年 以前의 地圖을 참고하여 작성하면서 舊名一部를 고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京畿, 忠淸, 江原道圖 1장으로 되어있으며 세로 89.5cm 가로 92cm이고, 慶尙道圖 세로 56.5cm 가로 80cm, 全羅通圖 세로 78cm 가로 80cm, 黃海道圖 세로 81cm 가로 62cm, 平安道圖 세로 85.5cm 가로 102.5cm, 咸鏡道圖 세로 115.5cm 가로 90cm 등 총 6장으로 15세기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8) 輿地圖

이 지도는 저작자 미상의 지도로 미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輿地圖 5鍾 중 유일하게 木版으로 인쇄되었으며 中國圖, 京畿道圖, 忠淸道圖, 全羅道圖, 慶尙道圖, 江原道圖, 平安道圖, 黃海道圖, 咸鏡道圖 등을 總括 版刻하여 連接한 地圖이다. 地圖의 形式과 內容이 18世紀 中期 무렵의 輿地圖와 비슷하게 새긴 異版地圖다. 慶尙道圖에 英祖43年(1767) 改稱 以前의 옛 地名인 '安陰' 과 '山陰' 이 표시된 점으로 미루어 18世紀 後期以前에 版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세로 27cm 가로 31cm이다.

9) 輿地圖

이 지도 역시 摺鋪裝의 彩色 寫本으로 지도가 모두 13장으로 되었다. 내용을 보면 朝鮮總圖, 京畿道圖, 忠淸道圖, 全羅道圖, 慶尙道圖, 江原道圖, 平安道圖, 黃海道圖, 咸鏡道圖, 中國圖, 琉球國圖, 日本國圖, 天下總圖로 되어있다. 地圖를 그린 수법이 18世紀 中期의 彩色 寫本인

'朝鮮地圖並八道天下地圖'(國立中央圖書館藏)과 비슷하다. 그 예로서 '朝鮮摺圖'를 國立中央圖書館藏 '八道摺圖'와 비교하여 보면 名山 큰江을 그렸는데 白頭山 오른쪽에 長白山을 표시하고 있으며, '朝鮮摺圖'와 '江原道圖'에 다같이 '于山圖'와 '鬱陵島'를 표시하고 있다(천혜봉 외 1994). 그리고 慶尙道圖에는 英祖 43年(1767) 改稱 以前의 옛 地名인 '安陰'과 '山陰'이 쓰이고 있다. 이들 地名이 改稱되기 以前의 18世紀 中期경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全張의 크기는 세로 35cm 가로 33cm이다.

10) 輿地圖

이는 憲宗 15年(1849)에 처음으로 간행된 東國輿地圖를 바탕으로 그대로 그린 彩色 寫本이다. 그 寫成시기는 19세기 末期로 추정되며 지도 크기는 세로 31.5cm 가로 39cm의 摺鋪裝이다.

11) 輿地圖

이는 憲宗 15年(1849)에 初刊한 東國輿地圖를 그대로 베껴 쓴 彩色 寫本 地圖이다. 지도책 앞에 抵本이 된 책의 序文을 '歲屠維作噩(己酉, 憲宗 15, 1849) 仲秋上澣 錦湖散人 河南 呂溫謹 輿圖序'로 轉載하였고, 표지상에는 '歲在己亥光武三年'(1899)을 墨書로 記錄하고 있다. 지도를 그린 방법으로 보아 光武3年(1899)에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12) 輿地圖

이 역시 摺鋪裝으로 지도가 모두 13장으로

되었으며 18世紀 末期의 木版本 輿地圖를 바탕으로 그린 彩色 地圖이다. 地圖 내용은 天下圖, 中國圖, 朝鮮總圖, 京畿道圖, 忠淸道圖, 全羅道圖, 慶尙道圖, 江原道圖, 咸鏡道圖, 黃海道圖, 平安道圖, 日本道圖, 琉球國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咸鏡道圖에 正祖 11年(1787)에 始置한 '長津'이 나타나 있고, 正祖 24年(1800)에 '利城'을 '利原'으로 改稱하였는데 그 舊稱이 사용되고 있으며, 慶尙道圖에는 英祖 43年(1767)에 '安陰'을 '安義'로 '山陰'을 '山淸'으로 改稱한 地名이 표시되어 있다. 正祖 11年(1787)부터 同王 24年(1800) 以前의 사이에 제작한 輿地圖를 바탕으로 그렸는데, 부분적으로 잘못 베껴 쓴 것이 있음이 발견된다. 그린 수법으로 보아 19世紀에 寫成한 것으로 추정된다. 全張의 크기는 모두 세로 27cm 가로 38cm이다.

13) 輿地要覽

이는 각 지방에 대한 기록을 地圖와 함께 수록한 것으로 내용은 天下地圖, 中國地圖, 朝鮮八道圖,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 慶尙道, 江原道, 咸鏡道, 平安道, 黃海道, 日本國圖, 琉球國圖로서 黑色寫本이며, 전체 지도 크기는 세로 25.8cm 가로 30.5cm로 27장으로 되어 있다.

14) 輿載撮要

이는 摺鋪裝의 木版本이며 13장으로 되어 있다. 지도 내용은 天下之圖, 中國道, 朝鮮總圖,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 慶尙道, 江原道, 咸鏡道, 黃海道, 平安道, 日本國, 琉球圖 등이다. 이 책의 범례에 '朝鮮及淸國則... 皆用西曆一千八百六十六年'의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高宗 23年(1886) 무렵에 板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朝鮮地圖

이는 7장의 彩色 地圖인데 咸鏡南道, 咸鏡北道, 京畿·忠淸道, 平安道, 慶尙道, 江原道, 黃海道 전국 8道를 그린 것이다. 각 장의 크기는 咸鏡北道 세로 119cm 가로 72.5cm, 咸鏡南道 세로 116.2cm 가로 72.2cm, 京畿·忠淸道 세로 115cm 가로 72.5cm, 平安道 세로 116.8cm 가로 72.8cm, 慶尙道 세로 110.7cm 가로 72.3cm, 江原道 세로 106.4cm 가로 72.5cm, 黃海道 세로 102.5cm 가로 72.2cm이다.

16) 朝鮮八道圖

이는 지도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는 墨色의 寫本이다. 그 내용은 天下地圖, 中國圖, 朝鮮八道圖, 京畿道圖, 全羅道圖, 慶尙道圖, 江原道圖, 咸鏡道圖, 平安道圖, 黃海道圖, 日本道圖를 總括하여 그린 것이다. 그린 방법이 粗拙하나 손쉽게 慶尙道圖를 조사하여 보면 英祖 43年(1767)에 '安陰'을 '安義'로, '山陰'을 '山淸'으로 改稱하였는데, 그 舊稱地名이 쓰이고 있으므로 작성 時期는 地名이 改稱되기 전인 18世紀後期 以前으로 추정되며, 이 지도는 國立中央圖書館이나 서울대 所藏의 八道圖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각 지도의 크기는 세로 28.2cm 가로 17cm이다.

17) 中國十三省圖

이는 彩色 寫本으로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도이며 낱장 1장으로 되어 있고, 詩文을 쓴 楮紙 뒷면에 그린 中國地圖이다. 사용한 옛 종이나 地圖를 그린 방법이 18세기에 나온 地域

圖와 비슷한 것으로 작성된 시기가 18세기 후기로 추정된다. 크기는 세로 29cm, 가로 29cm, 세로 27cm, 가로 27cm 등 2種이다.

18) 天下地圖

이는 摺鋪裝의 彩色 寫本으로 내용은 朝鮮國圖,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 慶尙道, 江原道, 黃海道, 平安道, 咸鏡道, 天下道, 中國道, 日本國道, 琉球國圖로 되어 있다. 이 지도의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32cm이며 13장이다.

19) 八道地圖摺圖

이는 木版으로 인쇄된 낱장의 지도로서 지도 중에 京城附近地圖와 漢陽京城圖를 ‘鰈域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와 대조하여 본 바 내용이 동일하다. 江原道圖에는 鬱陵島와 함께 于山島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19세기 말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크기는 세로 29.8cm 가로가 36.7cm이다.

20) 八道地圖摺圖

이는 摺冊지도로서 大朝鮮國全圖, 京城附近之圖, 漢陽京城圖, 京畿道圖, 忠淸道圖, 全羅道圖, 慶尙道圖, 江原道圖, 黃海道圖, 平安道圖, 咸鏡道圖로 구성되어 있으며 新式인쇄본이다. 크기는 세로 30.3cm, 가로 18.4cm이다.

21) 海左全圖

이는 부분적으로 채색된 木版이며 鄭尙驥의 東國地圖와 유사한 수법으로 山脈 河川 및 交通網을 그려 새긴 우리나라의 全圖다. 版刻年代 표시가 없으나, 沿革說明文에 純祖二十二年置 厚州의 記錄이 있다. 純祖 22年(1822)에 咸鏡

圖에 厚州郡을 設置했음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것은 廟號를 사용한 점이다. 地圖의 版刻時期는 純祖가 升遐(1834) 하여 廟號가 정해진 1857년 以後의 19世紀 後期에 해당함을 알 수 있게 한다.

地圖周圍에는 白頭山, 金剛山, 雪嶽山, 俗離山, 伽倻山 등 16餘個 名山의 說明과 白頭山, 長白山의 定界碑, 鬱陵島 對馬島의 沿革, 草梁倭館 그리고 古朝鮮 漢四郡 新羅九州 高麗八道の 縣, 邑數 등을 적고 있어 地圖를 읽는데 참고용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

비교적 精巧하게 그려 새긴 地圖이다. 낱장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112cm, 가로가 59cm이다.

22) Description D'un Atlas Sion-Coreen, Manuscrit du Btitish Museum, par Henri Cordier V.1, Paris, Ernest Leroux, 1896.

英國의 大英博物館 所藏의 韓國地圖에 의거, 四海摺圖 中國圖 朝鮮地圖 日本地圖 琉救地圖 및 우리나라 地方圖등을 複製 수록하고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 바탕이 된 韓國地圖는 咸鏡圖를 볼때 正朝 初年(1777)에 ‘理山’을 ‘楚山’으로 고친 地名이 나타나고, 正祖 24年(1800)에 ‘利城’을 ‘利原’으로 고쳤는데 그 舊稱名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8世紀 末期 무렵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2.2 地方圖

1) 京畿道圖

이는 詩文을 墨書한 楮紙의 뒷면에 그린 京畿地方의 彩色 寫本 지도이다. 사용한 종이와 地

圖를 그린 방법이 慶尙道圖와 忠淸道圖와 同一하므로 18세기 후기에 작성한 것이라 추정된다. 낱장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47cm, 가로가 58cm이다.

2) 京城附近地圖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木版本 鱗域地圖에 들어 있는 '京城附近地圖'를 바탕으로 인쇄한 지도이다. 地形의 羽毛式 표시가 다르고, 地圖中央에 새로운 細線을 그렸으며 地名을 活字化한 것이 그 差異일 뿐이다. 낱장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0cm, 가로 40cm이며 1896년 이후에 다시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慶尙道圖

이 역시 詩文을 墨書한 楮紙 裏面에 그린 嶺南地方의 彩色地圖다. 英祖 43年(1767)에 '安陰'을 '安義', '山淸'을 '山淸'으로 改稱하였는데 이 地圖에는 安義와 山淸의 새지명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以後의 18세기 후기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낱장 1장으로 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80cm, 가로 59cm이며 미의회도서관외에 다른 도서관에는 볼 수가 없다.

4) 京兆五部

이는 彩色 寫本으로서 金正浩가 哲宗 12年(1861)에 刊印한 大東輿地圖 第 1帖에 삽입된 京兆五部를 바탕으로 그렸다. 差異가 있다면 中梁川 石橋에서 沙河里와 雨裝峴에서 西大門까지 그리고 德水川의 高陽路에서 露梁鎭을 거친 始興路를 넓게 표시한 점이다.

이 地圖의 東쪽은 中梁川이 흐르고, 北쪽은 三角山과 그곳에서 山脈이 三面으로 뻗었고, 南·西쪽은 漢江이 에워싸고 있으며, 中間은 白岳 仁王山 駝駱山 木覓山으로 둘러 싸인 盆地로 되어 있다. 地名 道路 浦津 橋梁 樓亭 宮署 寺庵 陵墓등의 표시가 대체로 구체적이다. 地圖의 작성시기는 19世紀 後期로 추정된다. 낱장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7cm 가로 43cm이다.

5) 京兆總圖

이 역시 낱장 1장으로 된 彩色 寫本 지도로서 京兆의 東西南北部를 중심으로 한 주위 全域을 그렸으며 坊洞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京兆圖에는 坊洞以外에 여러 宮廟 즉 景慕宮, 毓祥宮, 宣禧宮 등이 표시되어 있다. 毓祥宮은 英祖 36年(1754)에 毓祥廟를 改稱한 것이다. 高宗 7年(1872)에는 毓祥宮에 宣禧宮이 합쳐졌는데, 여기서는 각각 따로 표시되어 있어 이 지도는 高宗 7年 以前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작성 방법으로 고려해 볼 때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크기는 세로 37cm, 가로 43cm이다.

6) 都城圖

이는 彩色 寫本으로서 詩文을 墨書한 楮紙 裏面에 都城 五部 四十九坊을 그린 地圖이다. 이 都城圖를 살펴 보면 英祖 26年(1750)에 洗劍亭 附近으로 옮긴 '摠戎廳'이 표시되어 있고, 英祖 30年(1754) '毓祥廟'를 '毓祥宮'으로 改稱한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慶德宮'은 英祖 36年(1760)에 '慶熙宮'으로 改稱하였는데, 반대로 그 舊稱명이 표시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都城圖는 英祖 30~36年 (1754~1760)사이 즉 18世紀 後期로 접어든 무렵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세로 43cm 가로 50cm이다.

7) 首善圖

이는 詩文을 쓴 뒷면에 都城 五部 四十九坊을 彩色하여 그린 지도이다. 제작 시기를 알기위해 道城안의 宮의 명칭을 살핀 바 慶德宮이 쓰이고 있다. 이 宮은 英祖 36年(1760)에 慶熙宮으로 改稱되었는데, 그 舊名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 즉 18세기 후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보여 진다. 낱장 1장으로 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1cm 가로 60cm이다.

8) 元山全景

이는 元山지방을 水墨으로 입체감 있게 그린 지도이다. 永興大江山, 薪島, 連島 등 세 地域만이 그려져 있다. 지도의 크기는 세로 63.5cm 가로 95.2cm이다.

9) 全羅道圖

이는 호남지방을 詩文 裏面에 彩色하여 그린 지도이다. 유사한 전라도 지도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나 이 규장각본은 1872년경 중앙의 지시로 각 읍에서 제작 上送한 지도로 이 미의 회도서관 소장본과는 다르다. 이 全羅道圖는 앞서 언급한 경상도도와 그린 방법이 비슷한 점으로 18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낱장 1장으로 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3cm 가로 60

cm이다.

10) 忠淸道圖

이는 湖西地方의 채색 사본 지도인데 詩文을 墨書한 楮紙 裏面에 작성되었다. 郡縣의 명칭 중에 尼城이 기재되어 있는데 尼城은 太宗 14年 (1414년)에 과전을 줄이기 위해 京外冗官을 줄인다는 원칙하에 小縣들을 병합하였는데 이때 尼山과 石城을 합쳐 尼城이라 하였고⁷⁾ 正祖 즉 위 1776년에는 尼山을 尼城으로 고쳤으며⁸⁾ 純祖 즉위 1800년에 '改尼城爲魯城'으로 하여 魯城이 되었다⁹⁾. 이 지도에서는 尼城으로 쓰여지고 있어 1800年 以前 18世紀 後期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낱장 1장으로 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59cm 가로 82cm이다.

11) 平安道圖

이는 관서지방의 彩色 地圖로서 南華經 木版 後刷本을 해체하여 책 裏面에 그린 것이 앞서 언급한 충청도도와 비슷한 점이며, 같은 시기 18세기 후기에 작성된 듯 하다. 낱장 1장으로 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95cm 가로 72cm이다.

12) 漢陽京城圖

이는 당시 京城을 墨色으로 그린 寫本 지도로서 大朝鮮國全圖와 漢陽京城圖로 되어 있는 鱗域地圖를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다만 지도의 제목 위치만이 다르고 地形 표시도 재래의 표시방법을 달리하여 外來의 羽毛式을 채택하고 있다.

이 지도의 제작시기는 鱗域地圖가 나온 이후

7) 『太宗實錄』 卷 28, 14年 8月 辛酉條.
 8) 『正祖實錄』 卽位年 五月 壬辰條.
 9) 『純祖實錄』 卷 1, 卽位年 八月 庚午條.

즉 19세기 末로 추정된다. 낱장 1장이며 크기는 세로 34cm 가로 49cm이다.

13) 黃海道圖

이는 海西地方을 그린 彩色 사본으로서 詩文 裏面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제작 방법이 앞서 언급한 忠淸道圖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같은 시기 18세기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미의회도서관에 소장 되어있는 地理類를 地誌와 地圖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地誌가 2종, 地圖가 35종으로 지리류에서는 지도가 총지리류 소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地圖는 朝鮮朝 後期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며 彩色 寫本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結論

이상으로 미의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韓國古書에 대하여 書誌的으로 연구한 바, 우선 所藏 현황을 주제별로 보면 史部의 서적이 전체 소장량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集部가 28% 子部가 18% 經部가 9%로 史部가 제일 많고 그 다음 集部 子部 經部 순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部類별로 소장 현황을 보면 經部에서는 小學類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禮類 四書類 詩類 順이다. 史部는 編年類가 77%로 제일 많고 그 다음 傳記類 雜史類 순이다. 子部는 儒教類와 釋迦類가 총 51%로 제일 많다. 集部는 別集類가 83%, 總集이 11%으로 文集類가 총 94%를 차지하고 있다.

편찬·간행시기 및 판종별로 보면 寫本이 57종 刊本이 356종으로 刊本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寫本의 편찬시기는 寫本 총 57종 중 51종이 즉 89%가 조선조 후기에 편찬된 것이다. 刊行本은 朝鮮朝 初期에 간행된 것이 13종, 中期가 21종, 後期가 109종으로서 朝鮮朝 後期에 간행된 서적이 간행본에서도 주종을 이루고 있다.

所藏本의 판종을 보면 石印板이 10종으로 2.4%, 木板이 169종으로 41%, 木活字板이 31종으로 7.5%, 筆寫本이 56종으로 13.6%, 금속활자본이 89종으로 21.5%로 되어 있어 목판본 41%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금속활자본이다. 이 금속활자본의 98%가 英·正組 후기에 鑄造된 것들이다.

이러한 韓國 古書 중에 특히 地理類의 자료는 국가의 領土 確定이나 軍備의 확충, 徵稅의 타당과 증가를 꾀하는 기초 자료로 역대에 많이 제작되어 당시의 사회 문화 지리 연구에 중요하여 많이 연구되는 바, 우선 한국에서의 지리류 발전의 개황을 살피고, 그와 함께 미의회 도서관의 소장되어 있는 지리류를 實査 분석하였다.

이 지리류는 地誌와 地圖로 구분하여 보면 地誌가 2종, 地圖가 35종으로 지도가 총지리류 소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地圖의 종류를 보면 全國圖가 22종, 地方圖가 13종이었고, 全國圖에서는 印刷本이 8종, 寫本이 14종이었으며 印刷本 중에 木板이 6종이고 그 외는 현대식 印刷本이었다. 寫本중에는 彩色 寫本이 11종, 墨色寫本이 3종이었다. 地方圖는 彩色寫本이 11종이고 墨色寫本이 1종이며, 新式 印刷本이 1종으로서, 地圖의 대부분이 彩色

寫本이었다. 또한 지도 제작시기는 조선조 후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상으로 미의회도서관소장의 한국고서의 주제별, 간행편찬시기별 및 판종별로 분석하고 특

히 그 중 지리 자료에 대해 일일이 그 서지적 특징은 살폈으나, 앞으로 이 외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8. 『韓國文化史大系 Ⅲ』.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國立地理院. 1980. 『朝鮮地誌』. 서울: 建設部.
金相昊. 1995. 『地理學概論』. 서울: 일조각.
『四庫全書總目提要』. 1971. 영인본:臺北:臺灣商務印書館.
金富軾. 1973. 『三國史記』. 영인본: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이상태. 1999. 『한국고지도발달사』. 서울: 해암출판사.
鄭麟趾 外篇. 1972. 『高麗史』. 영인본: 서울: 亞細亞文化史.
『朝鮮王朝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千惠鳳. 1994.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서울: 韓國書誌學會.
洪始煥. 1997. 『地理學史』. 서울: 大旺社.